

태안고등학교, 씨름부 역사를 쓰다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경장급 이주영 1위, 소장급 가수호 1위

태안고등학교(교장 류재환)는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경북 구미시 경운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씨름 남고부에서 충남대 표로 침가해 금2의 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달성했다고 전했다.

3학년 이주영과 3학년 가수호가 각각 경장급과 소장급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주영은 “그동안 성적이 좋지 못해 마음이 무거웠으나, 졸업을 앞둔 마지막 해에 전국체전이 열리게 되어 우승까지 이뤄 감사하고, 항상 믿어 주고 지도해주신 백서현 감독님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장덕영 부장선생님과 부모님께 감사하며, 함께 훈



련하며 땀 흘려 온 선배들이 있었기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우승 소감을 밝혔다.
가수호는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

전국체전에 처음 출전이어서 주말에도 학교에서 친구, 후배들과 연습하며 준비했고, 감독님께서 상대를 읽는 기술 등을 코치해주어 적중했다. 처음 출전한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는 것에 매우 기쁘고,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며 기쁨을 표현했다.

류재환 교장은 “이번 메달은 그동안 땀 흘리며 훈련에 임해준 학생 선수들의 노력의 결과이며, 특히, 헌신적인 지도와 노력을 해준 지도자들과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준 학부 모님, 지역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재필 기자



산고(4대2) 그리고 결승 경기에서 경남 김해고(6대1)를 누르고 전승으로 우승하며 정상의 자리에 올랐다.

이성진 감독은 “연 초에 아픈 아이들이 많아 걱정도 커었고 대회 앞두고 선수들의 컨디션 난조, 코로나19 확산 등 힘들었던 고비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투혼을 발휘해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 정상에 오른 선수들이 흘린 땀과 노력에 박수쳐 주고 싶다며, 코치님을 비롯해 열심히 지원하고 응원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조성찬 기자

서산공업고 최권혁 학생, 위험물 산업기사 합격

서산공업고등학교 위험물안전관리자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

서산공업고등학교(교장 이보선)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화학공업과 3학년 학생 중 최권혁 학생이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을 통해 위험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했다고 전했다.

과정평가형 자격은 국가직무능력 표준(NCS)으로 설계된 교육 및 훈련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수하고 내·외부 평가를 거쳐 학생에게 국가기술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서산공업

고 화학공업과는 2019년 과정평가형 자격을 도입, 도제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자(위험물 산업기사, 기능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위험물 산업기사(안전관리자 양성) 자격을 취득한 최권혁 학생은 “취업 준비를 위해 재학 기간 동안 기능사 자격증만 3가지(위험물기능사, 화학 분석기능사, 환경기능사)를 취득했는데,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통해 위

이보선 교장은 “정서지능이 높은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 서산공업고등학교는 산업체 실무능력 향상의 일환으로 전문대학 수준의 교육과정인 과정평가형 산업기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나아가 2021년 올해부터 도입된 고교학점제를 통해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진로 진학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군특성화학교, 과정평가형 자격, 전공심화동아리 운영 등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들의 미래를 개척하는 창학력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현 기자

금산고, 제15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육상 부문 금메달 2관왕 쾌거

금산고(교장 이법연)는 지난 5·6일 전북의산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제15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육상 트랙 철각장에 100m, 200m 부문에서 1학년 김성종 학생이 금메달 2관왕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전국에서 분산 개최됐다. 대회가 수 차례 연기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구슬땀을 흘리며 꾸준한 연습을 해온 김성종 학생은 두 번째 출전 끝에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성종 학생은 “2019년 대회에서 스타트에서 실격을 당해 성적을 내지 못했고, 2020년 대회가 코로나19로 인해 열리지 않아 아쉬웠는데 올해 열심히 연습한 결과 좋은 성적을 얻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법연 교장은 “정각장애를 가진 학생이 장애를 극복해 역량을 발휘하고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자랑스럽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민준 기자

위례초,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국회사무총장상 수상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듣는 정부의 답변

위례초등학교(교장 김종범)는 지난 7일 오후 2시에 실시한 ‘제17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온라인 개최에 참여했다.

대한민국어린이국회는 어린이들에게 민주주의 체험과 국회의원 역할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국회에서 개최되는 행사로,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위례초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연구회 학생들은 수차례 토의와 협의를 거쳐 ‘코로나19 상황으로 초등학생의 기초학력 저하 및 정신건강 악화’에 대한 질문서를 제출해 정부에 대한 우수 질문서로 채택되어 국회사무총장상을 받았다.



유튜브로 진행된 어린이국회 본행사에 6학년 김태욱 학생이 대표로 질문했고,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정부 답변을 듣는 기회를 가졌다.

/김태연 기자

예산여고 조정부, 전국체육대회 금1, 동1 쾌거

예산여자고등학교(교장 오창근) 조정부가 지난 9일부터 3일간 경상북도 포항시 행신간 조정경기장에서 개최된 ‘제102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 1개와 동메달 1개를 획득하는 쾌거를 거뒀다.

이번 대회에서 3학년 정희망, 김성은, 2학년 김한나, 유진 선수가 여고부 퀴드러플 스컬 종목에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했고, 2학년 김한나, 유진 선수가 여고부 더블 스컬 종목에 출전해 동메달을 획득했다.

예산여고 조정부가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에서 이렇게 우수한 실적을 거둔 것은 이근희 감독과 이강호 코치

/최용관 기자

북창초, 가을 미니 올림픽 개최

북창초등학교(교장 박용정)는 지난 8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가을 미니올림픽을 개최했다.

두 학급씩 짜를 이루어 실시된 이번 미니올림픽은 사전 협의를 통해 놀이를 정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실시됐다.

개인 달리기, 줄넘기, 판 뒤집기, 북창 OX 퀴즈, 빙백 머리 올리고 달리

기, 짐볼 굴리기, 국자로 물 나르기, 피구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 되었으며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졌다.

박용정 교장은 “학생들이 마음껏 뛰놀며 즐거움을 느끼는 속에서 개인의 개성과 단체생활의 사회성과 협동성을 기르고, 경기와 운영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습관을 형성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성진 기자

주식회사 엔피에스

■ 정부조달물자판매(학교 및 관공서에 관련된 모든 가구류)

- ▲ 학생용사물함, 사무용가구, 학생용책걸상, 테이블(식탁), 수강용테이블, 의자, 파티션, 중역용 가구, 쇼파 등
- ▲ 협력사 : (주)내일퍼렉스, 서원퍼니처, (주)대우가구, (주)캠퍼스라인, 건영체어시스, (주)한길시스템, 체르마, 가구로 쇼파

■ 에어컨크리닝

TEL : 041- 668- 7668

TAX : 041-667-9087

충남 서산시 음암면 상홍2길 126-28 상가동